

포도원의 노래

- 이사야 5장 1-7절

김근주 ≪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 구약학

이사야 5장 1-7절은 흔히 “포도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진 본문이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의 영향으로 인해 아주 친숙한 본문이지만, 동시에 그로 인해 그만큼 잘못 이해되기도 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바가 무엇인지 가만히 귀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이라고 하겠다.

1. 본문의 짜임새

1절부터 2절까지는 포도원에 관한 노래가 소개되는데 예언자가 1인칭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3절부터 6절까지는 화자가 바뀌어서 포도원 주인이 1인칭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7절에서는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언자가 다시금 화자로 나서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내용면에서 보자면, 7절까지를 보통 “포도원의 노래”라고 다루지만, 엄밀히 말하면 1절

후반절부터 2절까지가 실질적인 “포도원의 노래”라고 할 수 있다. 3절부터는 이 노래에 나오는 포도원의 주인이 등장하면서 열매를 제대로 맺지 않은 포도원에 대한 대응을 선언하고 있다. 특히, 포도원 주인은 청중을 배심원의 자리로 초대하면서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한 포도나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 주인은 암묵적인 청중의 동의를 따라 그에 합당한 판결을 포도원과 그 나무에 내리고 있다. 청중과 독자들은 포도원 주인의 엄정한 판결이 상당히 당혹스럽지만 불가피한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7절은 포도원의 노래에 등장하는 주요한 부분들이 각각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해설하면서 노래의 세계에서 현실의 세계로 돌아 오게끔 이끈다. 그와 더불어 간략한 해설을 통해, 이 노래의 의도와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해 주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본문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1절 전반절 <도입>: 예언자-내가 포도원에 대해 노래하리라

1절 후반절-2절 <내용>: 예언자-포도원의 노래

3-6절 <내용>: 포도원 주인-내가 이 포도원을 황무케 하리라

7절 <해설>: 예언자-여호와와 그의 심으신 유다

2. 본문의 풀이

1절 첫머리는 이스라엘의 성문 앞 광장에 등장한 예언자를 떠올리게 한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등장한 예언자는 청중들을 향해 자신이 노래를 하나 부르겠다고 말하고 있다. 1절과 2절에서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표현들은 청중으로 하여금 이제 시인이 된 예언자를 통해 달콤한 사랑의 노래가 불릴 것을 기대하게 한다. 포도

원이라는 소재 역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의 풍요를 상징하는 단어였다는 점에서(신 6:11; 8:8) 그러한 달콤하고 희망적인 내용을 상상하게 한다. 노래의 내용도 그러한 낙관적인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는 듯 했다. 포도원이 위치한 곳은 참으로 기름진 언덕이었으며, 포도원의 주인은 이 포도원을 위하여 극진한 정성을 기울인다.

2절에 등장하고 있는 일련의 동사들은 주인의 이러한 정성을 여실히 보여 준다. 그는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내고, 질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으며, 혹시라도 들짐승들이 짓밟는 것을 막기 위해 포도원 가운데에 망대도 세웠다. 여기서 그가 심은 것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소렉’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소렉의 포도’를 의미할 것이며, 이렇듯 장소 이름이 언급되는 것은 최고의 품질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참고: 오빌의 금, 바산의 암소). 마치 우리나라에서 나주의 배, 풍기의 인삼 같은 표현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정성을 다 기울인 주인은 이제 그 수확을 대비하며 포도즙을 짜는 틀을 파 두었다. 바위에 포도를 넣고 짜는 구멍과 그렇게 짜인 즙이 흘러가서 모이게 되는 구멍 등을 미리 파 두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주인은 기름진 언덕 위에 돌을 골라내고 땅을 갈고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워 그 자라는 내내 지키고 돌보았으니, 이제 포도즙을 짤 것을 준비하고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리고 희망하는 것은 너무 당연할 것이다. 이렇듯, 달콤하고 희망차고 순조로움으로 가득 찬 상황, 그리고 이를 반영하는 일련의 동사들을 단번에 뒤집어 버리는 것은 2절 마지막에 나온 두 어휘이다. “(그러나) 들포도를 맺었도다.” ‘들포도’라는 번역은 썩 적절치 않다. 이러한 번역은 라틴역 별게이트(Vulgate) 이래로 등장한 ‘wild grape’라는 표현에서 온 것인데, 품종 자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좋은 품종을 심었는데 다른 품종이 난다는 것은 말이 잘 되지 않는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는 신약 성경의 언급 역시 이 점을 뒷받침한다(마 7:16-17). 히브리어 동사 ‘바아

쉬'의 의미 가운데에 '악취 나다'가 있음을 고려할 때, '(죽어서) 썩은 포도' 혹은 '악취 나는 포도'로 이해하고 옮기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여겨진다(H. G. M. Williamson).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차서 달려 나가던 노래의 결론은 뜻밖에도 악취 나는 포도, 썩어 버린 포도의 결실로 끝나고 말았다. 그런 점에서 여러 학자들은 이 본문의 중요한 테마로 '좌절된 기대'를 지적하기도 한다. 마지막 뜻밖의 결론을 볼 때에, 이제까지 나왔던 모든 희망적이고 건설적인 단어들은 오히려 결론적인 현실이 얼마나 참혹하고 기대에 동떨어진 것인지를 보여 주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청중 혹은 독자들의 당혹스러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갑작스러운 반전도 당황스러운데, 이 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풀이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난데없이 포도원 주인이 일인칭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도원主人的 말은 두 번의 '브앗타'(3절과 5절, 직역하면 '그러므로 이제')로 시작된다. 첫 번째 부분에서 포도원 주인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을 부르면서 그들이 직접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에서 이러한 표현들이 사용될 때, 재판 혹은 소송의 맥락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포도원 주인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에게 재판석상에 있는 배심원 혹은 판결자들이 되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1-2절의 노래 자체는 상징적인 표현들로 가득하였는데, 이제 주인은 구체적인 동시대의 사람들을 배심원으로 불러 세우면서 그 노래를 현실로 가져오고 있다. 4절은 그들을 향한 포도원 주인의 최종적인 진술인 셈이다. 자신이 이제까지 포도원에 기울였던 노력과 정성으로 보건대 마땅히 제대로 된 포도를 얻었어야 함에도 그가 얻은 것은 썩어서 냄새 나는 포도였다.

5절은 두 번째 '브앗타'가 등장한다. 3-4절의 내용에서 자연스레 청중들의 이러저러한 반응을 기대하게 되지만, 5절은 '그러므로 이제'로 시

작하면서 포도원 주인 스스로 그 포도원에 대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다. 그런 점에서 5절 역시 뜻밖의 전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포도원 주인은 그 포도원을 단번에 뒤엎어 버리기 때문이다. 보통 예상할 수 있는 행동으로, 한두 해 더 두고 보겠다는 식으로(가령, 눅 13:6-9), 아니면 품종을 바꾸어 본드든지가 아니라, 아예 주인은 그 포도원을 못쓸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1-2절에서 포도원에 기울인 주인의 정성을 반영하는 일련의 동사들만큼이나 인상적인 방식으로 5-6절은 동사들로 가득하다. 그는 그 울타리를 걷어 버려서 들짐승들에게 먹히게 할 것이고, 그 담은 헐어 버려서 짓밟히게 할 것이다. 그는 그 포도원으로 끝장이 나게 할 것이며, 그래서 다시는 그 곳에서 가꾸거나 돌볼 식물이 아예 자라지 못하게 할 것이되, 다만 가시와 엉겅퀴만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주인의 처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최종적으로는 그 곳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할 것이니 아마도 종래에는 가시와 엉겅퀴조차도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그야말로 황무한 곳이 되고 말 것이다. 건기와 우기가 뚜렷이 구분되는 팔레스타인의 현실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은 최악일 것임이 분명하다(신 28:24; 왕상 8:35). 그야말로 포도원 주인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철저하게 그 포도원을 파괴해 버릴 것이다.

달콤한 사랑의 속삭임과 희망을 기대하며 시작되었던 노래는 비참하고도 살벌한 심판에 대한 선고로 끝났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누구도 주인의 이러한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1-2절에 나왔던 희망차고 소망 가득한 표현들과 동사들은 이제 임하게 될 끔찍한 심판과 황폐를 더욱 정당화시키고 있을 따름이다.

포도원에 임할 두려운 결과에 몸서리치고 있을 청중들과 독자들을 향해 이제야 이 노래의 실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풀이된다. 아마도 청중들과 독자들은 이미 이 노래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짐작하고 있을지도 모

른다. 포도원의 노래에 사용된 표현들이나 주인의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이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안에서 빈번하게 사용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포도원과 그에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지만, 지극히 신학적인 용어들이 가득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7절에 제시되는 해설은 모든 것을 다 포괄하며 해설하지 않는다. 많은 내용들이 이미 전제되어 있으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만이 제시되고 있다. 포도원을 소유한 주인은 다름 아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포도원은 바로 이스라엘 집이고, 그 포도원에 심긴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여기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남북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전체로서의 백성과 그 한 부분으로서의 구체적인 사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언자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동사들에 대한 일체의 설명은 생략하되, 가장 결정적인 부분인 열매에 대해 풀이한다. 주인이 기대했던 포도가 있고 실제로 맺힌 썩은 포도가 있었다.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포도는 바로 ‘정의’와 ‘공의’였고, 실제로 맺힌 썩은 포도는 포학과 부르짖음이었다. 히브리어로 보자면, ‘정의’를 의미하는 ‘미슈파트’는 ‘포학’을 의미하는 ‘미스파흐’와 대칭되어 있고, ‘공의’를 의미하는 ‘츠다카’는 ‘부르짖음’을 의미하는 ‘츠아카’와 대칭되어 있다.

7절의 해설 부분은 이 포도원에 임할 심판 부분에 대해서도 풀이하지 않는다. 가장 근본이 되는 상징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분명한 이상, 포도원에 닥칠 끔찍한 말씀들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듣고 있는 청중들의 머리 위에 드리워진 검은 구름이 되어 버렸다. 그러면서 7절은 오직 그들에게 닥칠 두려운 심판의 원인에 대한 부분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지 않는 그들의 현실이야말로 이 음울한 미래의 원인이다. 그래서 포도원의 노래라는 이 본문의 모든 초점은 마지막에 제시된 ‘정의와 공의’로 집중된다.

3. 미슈파트와 츠다카(정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로 번역된 히브리어 표현 ‘미슈파트’와 ‘츠다카’는 한국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샬롬’만큼이나 중요한 어휘이다. 사실 구약성경은 일관되게 ‘샬롬’의 최대의 근거는 ‘미슈파트’와 ‘츠다카’의 실현임을 알려 주고 있다.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샬롬’은 거짓말일 뿐이다.

미슈파트와 츠다카(혹은 체데크)는 두 단어이지만 사실 한 단어처럼 역할을 한다(중언법[hendiadys]). 이 어구는 구약성경에 빈번하게 등장하지만 개역성경에서 여러 단어들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이 어구의 중요성이 잘 인식되지 않고 있다. 한글 개역개정판은 대체로 일관되게 ‘정의와 공의’로 옮기고 있지만 여전히 몇몇 경우들은 달리 번역한다(시 37:6; 72:1; 잠 8:20; 사 56:1; 58:2 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삶의 핵심에는 츠다카와 미슈파트가 놓여 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해 얌은 보좌의 두 기초는 바로 츠다카와 미슈파트이다(시 89:14; 97:2).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 백성의 삶은 츠다카와 미슈파트를 행하는 삶이어야 한다.

‘츠다카’는 인간의 절대적인 윤리 기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관계적인 개념이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이웃임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에 대해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연관된 개념이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를 따라 올바르게 살아갈 때 그는 의롭대신(6:25).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 올바른 믿음의 행위를 보였고, 하나님은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창 15:6). 이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순종과 준수에서 주어지는 의로움이며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비롯된 의로움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어떤 사람이 이웃

에게 대해 ‘츠다카/체테크’를 행한다는 것은 그가 이웃에게 대해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이다(시 15:2). 그래서 그는 이웃을 참소치 않으며, 행악지 않고, 훼방치 않는다(시 15:3-5). 주리고 어려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그들을 도울 때,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사 58:8-9; 겔 18:5-9). 결국 츠다카는 이웃에 대한 올바른 행실, 이웃을 공홀히 여기는 삶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웃에 대한 이러한 진실한 자세는 경제적인 거래에서도 일관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상거래의 기본은 ‘츠다카의 저울’이다(레 19:36; 신 25:15; 겔 45:10). 그러므로 ‘츠다카’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동의하는 것과 연관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의 의로움이다. 그리고 인간의 처지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바로잡으시고 건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며, 그래서 많은 경우 하나님의 츠다카는 하나님의 구원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사 56:1; 62:1). 이웃에 대해 츠다카를 행한다는 것은 단지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함만이 아니라, 다른 이의 어려운 처지에 대해 마음을 같이 하는 공홀이 우선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정의 개념에서 구약성경의 ‘츠다카’는 공홀이 포함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미슈파트’는 하나님의 법도에 근거해 이루어지는 올바른 사회 질서를 가리킨다. 그런 점에서 이 단어는 ‘법, 재판, 규례 혹은 심판’까지 넓은 의미 영역을 지니게 된다. 츠다카와 미슈파트가 다루어지는 주된 재판의 현장은 구약성경에서 ‘성문’이었다. 보아스는 성문에서 장로들에게 문제를 이야기하고 룯을 아내로 맞아들였다(룯 4:1이하). 그의 말을 들은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이 증인이 되어 문제가 된 상황을 판결하고 해결한다(룯 4:11; 신 25:7). 부모에게 문제가 되는 자녀가 있어 징계하여도 듣지 아니하면 그 부모는 그 아이들 데리고 성문으로 가서 성읍의 장로들에게 자초지종을 고한다. 장로들은 이를 듣고 판정하며 장로의 판정을

따라 성읍 사람들이 집행한다(신 21:18-21). 부부간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도 이 같이 성문으로 나가서 성읍 장로들에게 아뢰고 그에 합당하게 판결한다. 장로들의 판결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으며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었다(신 22:13-21). 이것이 이스라엘 가운데 죄를 제거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는 재판에 관련된 표현과 규례들을 수없이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라고 해서 문제나 억울한 것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억울한 사정들이 얼마나 공의롭게, 미슈파트와 츠다카에 따라 해결되는가일 것이다. 억울한 일이 없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아니라, 억울한 일이 공의롭게 해결되는 공동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성문에서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지 않으면 사회 전체에 죄가 만연케 된다. 억울한 일을 겪은 이와 마음을 같이 할 때에, 거기에는 츠다카가 실현되고 있다 할 수 있으며, 마을의 장로들이 상황을 듣고서는 억울한 일을 신원하고 그 눈물을 닦아 주는 판결을 내릴 때에 그 판결이야말로 미슈파트인 것이다. 그래서 미슈파트는 억울한 이에게는 ‘구원’이고 그를 억울케 한 이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외모와 뇌물은 이 판결을 굽게 하는 최대의 방해 요소이다. 외모와 뇌물에 좌우되지 않는 재판은 공의로운 재판이다(신 16:18-20). 그러나, 외모와 뇌물에 따른 판결로 인해 그 억울함이 풀리지 않을 때, 억울한 사람들은 이제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외에는 달리 의지할 데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친히 그 부르짖음을 듣고 친히 미슈파트를 세우시며 불의를 징벌하고 책망하며 나아가 때로 그 성읍 전체를 진멸하신다. 소돔과 고모라가 겪은 일은 바로 그러한 부르짖음의 결과이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의 미슈파트와 츠다카의 준수 여부는 그 사회의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통해 정면으로 드러난다.

덧붙일 것은, 미슈파트와 츠다카가 좁은 의미의 ‘법대로의 세상’을 의

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여기에는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 구약에서 곧잘 미슈파트가 ‘인애’ 혹은 ‘자비’를 의미하는 ‘헤세드’와 함께 쓰이는 것에서도 이를 볼 수 있다. 사실, 미슈파트의 짝인 츠다카의 의미의 핵심에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긍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열매 맺는 삶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에 근거해 설교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본문과는 전혀 무관한 설교가 되곤 한다. 성경과 무관한 설교는 크게 두 가지 사항에서 기인한다. 첫째로 종종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에, 열매에 초점을 둔다. 그 자체는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 열매의 내용이다. 이사야 5장을 본문으로 선택하여 설교함에도 ‘열매’라는 부분에서 설교자들은 쉽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로 넘어간다. 그러면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결론이 맺어지기 일쑤이다. 혹은 어떠한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다루면서 기도의 열매를 맺자고 하거나 전도의 열매를 맺자는 식으로 본문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뜬금없는 적용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사야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의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는 바로 미슈파트와 츠다카, 정의와 공의이다. 물론 기도도 열매이고 전도도 열매이지만, 적어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가 전면에 드러나길 원하신다고 해야 할 것이다. 예배가 열매가 아니라, 전도가 열매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야말로 하나님께서 훗날에 우리의 삶을 결산하시면서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확인하실 열매라는 것이다.

이 본문에 대한 잘못된 설교의 두 번째 경향은 ‘정의와 공의’에 대한 그릇된 해석이다. 한글 개역개정판에서는 나아졌지만, 개역한글판에서 널리 사용되는 ‘의’라는 단어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신약적인 개념과 어울리면서 지극히 애매하게 해석되기 일쑤이며, 많은 경우, 그러한 해석이 도리어 ‘영적 해석’으로 치우치기까지 한다. 그러나 이사야 본문 자체는 이러한 그릇된 해석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지 않다. 본문에서 ‘정의와 공의’의 반대 개념은 “포함과 부르짖음”이다. ‘포함’으로 번역된 ‘미스파흐’는 구약성경에서 여기에만 쓰이는 단어인데, ‘미슈파트’와의 발음의 유사성으로 인해 선택된 단어일 것이다. 이 단어의 의미는 ‘피 흘림’이라고 할 수 있다(어근: נָחַם II). 피 흘림과 그로 인한 부르짖음은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자행되는 폭력과 횡포 가운데 짓밟히며 신음하는 이들의 참상을 의미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국문하시되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땀을 흘리는뇨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사 3:14-15). 나아가 8절 이하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 그리고 사 5:16), 여기서 다루어지는 정의와 공의가 이스라엘의 사회 현실에서 드러난 불의와 불법(참고 사 1:21-23)을 지적하고 있음이 더욱 명확해진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정의와 공의, 미스파트와 츠다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신 열매의 전부라는 점이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제사를 원하시거나 다른 것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라는 열매를 찾으신다. 그러므로 정의와 공의는 신앙의 사회정의의 측면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적 측면이다. 신앙인의 견지에서 사회적 실천을 찾아보고 적용해 보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의 견지에서 신앙적 삶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5장이 이사야의 사역 초기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은 대체로 이사야 연

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웃시야 말기 혹은 요담이 다스리던 시기가 그 배경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열왕기와 역대기가 전하고 있는 웃시야의 시대는 평화의 시대이며, 요담의 시대 역시 “이스라엘이 점점 강하여졌”던 시기였다(대하 27:6).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다 여기고 풍요를 말할 때에 이사야가 본 현실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왜 수많은 사람들은 부국강병과 평화를 노래하는데, 유독 이사야는 이제 곧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인 이스라엘을 뒤엎되 완벽하고 철저하게 뒤엎어 버리신다고 선포하는 것일까?

그런 점에서 예언자의 보는 것은, 아니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보여 주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깨닫게 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당시의 번영을 보고 평화를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예언자는 그 땅에 가득한 폭력과 피 흘림을 보고 있다. 얼마나 많은 폭력이 당시에 있었던 것일까? 얼마나 많은 피 흘림이 당시에 있었던 것일까? 예언자의 선포를 보노라면 어찌면 이사야는 별 것도 아닌 일을, 유다의 극히 일부에서 일어난 일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한다. 뒤집어 말하면 그것이야말로 예언자의 시각이요, 예언자에게 열어 주신 영적인 안목임을 발견하게 된다. 영적인 눈, 영안이 열린 사람은 별 것 아닌 사건에 그리도 마음이 쓰인다. 사회의 일부에서 일어나는 현실인데, 그 현실이 그리도 그의 마음과 영을 사로잡아 버린다. 그리고 그것이 이 사회의 전부인 것처럼 선포한다. “몇몇 중요하지도 못한 가난뱅이들이 어느 정도 불의한 일을 당했다 해서 영광의 도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온 민족이 포로가 되어 끌려간다는 것은 아무래도 지나치게 터무니없는 소리 같다. 예언자들이 죄벌을 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예언자들의 말은 잔뜩 흥분된 감정에서 쏟아내 놓는 말이다. 그의 비난은 엄격하고 가혹하다. 그러나 악에 대한 그들의 진지한 감수성을 히스테리라고 한다면 그들이 슬퍼한 악에 대하여 막무가내로 무관심한 것은 무엇이

라고 해야 한단 말인가?”(아브라함 헤셀).

얼마 전에 용산에서 일어난 가난한 이웃들의 참사와 관련해 열린 한 집회에 사용된 플래카드에 다음의 구절이 적혀 있었다. “땅의 구석구석이 폭력의 도가니이오니”(공동번역 시 74:20). 하나님께서 심으신 이스라엘을 뒤엎어서 황무하게 하신 것이 바로 이 폭력과 그로 인한 피 흘림 때문임을 깨달을 때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피 흘림과 부르짖음으로 가득 찬 현실 앞에서 무슨 열매를 하나님 앞에서 맺고 있는가?

:: 김근주 서울대학교(B.C.)와 장로회신학대학교(M.Div., Th.M.)를 나왔으며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에서 2009년 4월에 박사학위(Ph.D.)를 취득할 예정이다. 지금은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구약학 교수로 있다.